▶▶ 매일 INDEX

5면
탄소산업 고도화로 '강한 경제' 실현

전주매일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음 12월 13일) 제317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발전 한마음 한뜻으로 힘 모아"

전북상협, 신년인사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과 병행
윤방섭 회장 "상공인들이 주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김관영 도지사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북 대도약" 다짐

3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2023년 신년인사회에 김관영 도지사,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축하 떡케이크를 컷팅하고 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 주관,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3년 신년인사회 및 제17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정운천·한병도·김성주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과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 군수 등 도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계 대표와 지역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년에는 도민 모두가 전북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다짐했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원자재가격 상승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 상공인들이 주체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전북대도약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를 비롯한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올해는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웅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긴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전북 대도약을 이루어 가겠다"고 전했다.

신년인사회와 병행해 실시한 제17회 전북경제대상 대상은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 본상 경영인 부분은 이동규 (주)신성건설 대표이사, 기업부문은 한국차체(주)(대표이사 양은오)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제대상 수상자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난해 12월 26일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심사위원장으로 경제유관기관, 산업계 관계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김영태 기자

김관영 도지사, 올해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농협 도청지점 찾아 현 주소지 제외 도내 13개 시군에 10만원씩 기부금 각각 기탁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과 출향 전북인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기부에 동참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가 고향사랑 기부 대면접수 창구인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을 방문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10만원씩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일 기탁했다. <관련사진 2면>

김 지사는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기부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부는 농협은행에서 기부자의 신분 확인과 기부대상 시군 선택, 기부금액(현금) 납부, 답례품 선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고향사랑기부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출향인,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기부금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이나, 전국 농협은행에서 기부할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고향사랑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온 상태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특색있는 답례품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도, 목재문화지수 평가 '광역지자체 우수'

목재 활용 친환경 여가문화 조성 · 이용 활성화 등 노력 인정

전북도는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가 주관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전국 도(道) 단위 목재문화지수 평균인 70.1점보다 6.6점이 높은 76.7점을 받아 강원도 77.1점에 이어 두번째로 높게 평가받았다. 9개 도(道) 중 4위를 기록한 지난해 평가보다 2단계 높은 2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간 도는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등과 함께 전통 자산인 한옥을 기반으로 한 목재문화와 목공에 체험 등 산림교육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도민들의 삶 속에 목재가 항상 함께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완주 대아수목원 등을 거점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목재체험을 제공하며 올바른 목재문화의 정착과 목재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해 전북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비수도권 2위'

19억6100만불 기록 '역대 최고'

지난해 전북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역대 최고금액인 19억6,100만불을 기록해 비수도권 2위의 실적을 거두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전북지역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19억6,100만 달러로 전년도 81백만불 대비 2,321% 증가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동우화인켐이 증설을 위해 9,900만달러를 투자한 것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신고건수 30건의 업종별 분포도는 도소매 유통이 17개, 금속가공이 4개, 기계·전기 기업이 총 3개, 화학분야 기업이 3개, 연구분야, 곡물도정 중계분야가 각 1개 기업씩을 나타냈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이 12, 태국 3, 미국 3, 시리아 2, 이집트 2, 그 외 베트남·일본·아프카니스탄·터키·세인트키즈네비스·홍콩·호주·스웨덴이 각 1개 기업씩 차지했고, 도내 지역별로는 군산이 13, 익산 6, 전주 3, 남원·김제 각 2, 부안·고창·정읍·완주가 각 1개씩을 기록했다.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타깃기업 발굴, 본사 방문 및 온라인 IR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전북 경제를 선도하고 도민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인 수소,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산업의 기업은 물론, 친환경 자동차, 특수선 중심의 조선산업, 첨단·친환경 기반의 농기계 기업에까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외국투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센티브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